

부산불聯, 행정·재정 투명화 앞장선다

재무행정·사업조직국 2국 체제, 사무총장 부회장 겸임

“행정과 사업 이원화를 통해 포교활성화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며 공개입찰제도와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불교계의 재정, 행정투명화를 이끌겠습니다.”

사회의 종교계에 대한 행정, 재정 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불신수도 부산에서 재무행정 투명화 등 변화의 바람이 드세다.

부산시불교연합회는 7월 27일 불교연합회 회의실에서 제11대 집행부 출범에 따른 변화와 향후 부산불교발전 비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시불교연합회는 기존 1국 체제의 사무국을 2국 체제로 개편하는 등 부산불교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부산시불교연합회는 향후 기존 1국 체제의 사무국 조직을 재무행정국과 사업조직국의 2국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사무국 총책임자인 사무총장도 부회장 겸임으로 위상이 격상된다. 또 봉축기간에 임시 운영대 은 봉축기획단이 상설기구로 전환된다.

먼저 부산시불교연합회는 재무행정지원센터를 개소해 회원사찰의 재무행정 지원과 회원사찰 배가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또 부산불교 원로위원회와 부산불교최고지도자 회의를 신설해 지역별과 현안에 종단을 조율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지역 행사에서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해 예산 절감 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과 재무상황 공개도 진행한다. 부산시불교연합회의 이러한 변화는 부산지역에서 최근 교세를 넓히고 있는 기독교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불교연합회는 YMCA와 YWCA의 사업을 연구하

- 중무행정 지원센터 개소
- 행사업체 공개입찰 도입
- 기부금 현금영수증 발급
- 수행 맞춤형 특별강좌 개설

는 한편 이들의 사업이 불교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기로 했다.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부산시불교연합회 사무실에 기지실을 운영해 언론 소통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또 기존 포교프로그램과 함께 수행

자를 위한 맞춤형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해외교과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불교사랑 119신고전화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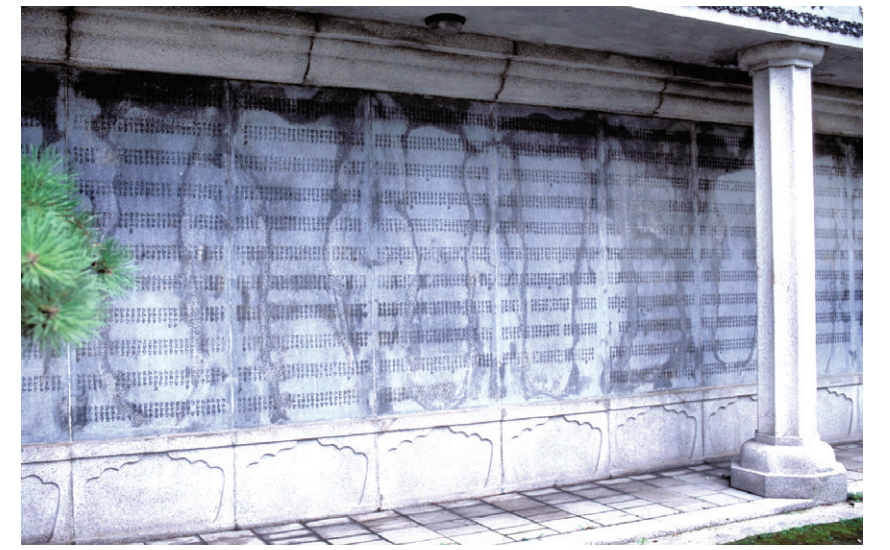
조직 구성에는 기획위원장에 심산 스님, 교학위원장에 성암사 주지 응현 스님, 포교위원장에 해원정사 주지 원희 스님, 문화예술위원장에 삼광사 대명 스님, 복지위원장에 운수사 주지 유정 스님, 언론대의 협력위원장에 해광사 주지 혜성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규정위원장은 범석심인당 효원 정사가 맡는다. 위원장 7직 모두 도심포교도량 주지 스님이다.

박용하 사무국장은 “향후 승가와 재가가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도 나설 예정이다”며 부산불교 발전을 위한 움직임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벽면을 빼곡히 채운 보시자의 이름과 금액. 보시흔적을 자랑하고 후대에 전하는 것을 기본 미덕으로 하는 풍토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진은 서울 보사찰 벽면에 적힌 보시자 명단.

복 빌고 상 내는 보시

보시의 본뜻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널리 베풀다’라는 의미이나, 일반적으로는 사찰에서 행하는 불사에 신도들이 재물을 내놓는 일로 이해한다. 부처님께는 보시의 기본 조건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르치셨다. 보상을 바라면 그것은 이미 보시를 행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오염되어 본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속인들에게 있어서 보시는 자신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원인으로 전락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단지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보시가 다른 이들에게 아상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된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보시행을 실천해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신라시대에 살았던 김대성도 그중 한 사람이다.

김대성은 종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살았지만 탁발은 온 스님에게 땅을 보시한 후, 좋은 집안에 다시 태어나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는다. 보시의 힘이 발휘된 아름다운 사연이다.

불교는 보시를 기본적 예너지로 삼아서 발전한다. 그것은 불자들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건물 상량문이나 불상의 복장, 탑에 모셔진 발원문을 보면 어느 시대이든지 불사를 성취하게 된 보시 인연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을 보면 보시의 흔적이 품위 있게 간직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신사를 보면, 줄지어 세워놓은 석등이나 담장을 두른 석주 하나에도 시주한 사람의 이름 혹은 보시금의 액수를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자기가 보시한 흔적을 드러내 놓고 자랑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기본 미덕인 것처럼 여겨진다.

최근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범종 걸면이 빼곡히 적어놓은 시주자의 이름, 탑의 기반 부 상대중석이나 석등의 간주석에까지 부인하기 어렵다.

불구에 새겨진 시주자 이름 무주상 보시 제대로 알아

새겨놓은 시주자 이름을 보는 것이 이제는 어렵지 않은 일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는 석주조에도 그것을 만든 시주자의 이름을 크게 새겨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주상보시의 정신은 보시한 사람의 이름을 구태여 드러내지 않아도 그 보시의 아름다운 인연이 복전을 일구는 힘으로 연결된다는 연기법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 불자들은 그러한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른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불사를 주관하시는 스님들이 무주상보시의 참뜻을 순수 실천하고 신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때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어린이 여름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이 입재식에서 다섯가지 은혜에 대해 생각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우리’

제34회 청도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청도 운문사(주지 일진)는 7월 27일 청도 운문사 만세루에서 제34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입재식을 개최했다.

‘항상 마음에 새겨 잊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큰 은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초등학교 3~6학년생 어린이 250명이 참석해 나라, 부모, 스승, 친구, 시주의 은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섭존자’, ‘목련존자’, ‘아난존자’ 등 6개 반으로 나뉜 학생들은 아침예불, 108배, 발우공양 등 불교 의식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체험했다.

특히 학인 스님들은 ‘우리는 꽃이다’ 등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율동을 선보여 작은 감동을 선사했다. 또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학생회에서 특별히 마련한 ‘부처님의 일대기’ 공연도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행사 인사말

에서 “부처님 품안에서 공부하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음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불교학교에서는 학인 스님 전원이 동참했으며 여름불교학교 출신 55명이 자원봉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운문사에는 여름불교학교의 인연으로 5명이 출가하기도 했다. 운문사는 1개월 전부터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2박 3일 동안 운문사의 일체 일정이 여기에 맞춰질 정도로 여름불교학교 행사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총괄한 능현 스님은 “운문사 어린이여름불교학교는 아이들이 사찰에서 자연학습과 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불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서 전국 찬불가 대회 열린다

대구에서 전국 규모의 찬불가 경연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보현사 신유협동조합과 한국불교음악인협회는 찬불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10월 21일 대구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 가족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독창과 가족중창, 중창 등 세 부문에 걸쳐 진행되며 대상팀에게 상장과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총 1400여 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대회 조직위는 8월 31일까지 참가 신청

을 받은 뒤 9월부터 지역별 예선을 치를 계획이다.

한편 전국 찬불가 경연대회는 9월 15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광주지역은 9월 22일 광주 무각사에서 예선이 치러진다. 서울에선 9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예선이 열릴 예정이다. 이어 10월 6~7일 대전 동학사문화원서 예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적사 여름숲속학교 개최

대구 은적사(주지 허주)는 7월 28일 비슬산 여름캠프 ‘은적사 여름 숲속학교’ 입재식을 개최했다.

은적사 숲속학교에는 53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80여 명이 참가해 발우공양, 새벽예불을 비롯한 참선 및 포행 힐링캠프

등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날 은적사 주지 허주 스님은 인사말에서 “각자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과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동료의식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신흥사 불교교양대학 수계법회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7월 30일 속초포교당 원각사에서 ‘신흥사 불교교양대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불교교양대학 수료식을 겸해 열린 이날 법회는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이 수계사로 나서 130명의 불교교양대학 수료생들에게 오계를 전했다.

법회에는 지난 4개월 동안 개근한 19명의 재학생에게 108염주가 기념으로 전달됐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수계식 법문에서 “수계의 공덕으로 우리 불자들이면 부처님 곁으로 가는 훌륭한 배에 오르 만큼 더욱 정진해 무상대도를 이루시길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③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바른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문장대 인등

어새기등

펜트케이블등

주름등

양진기등

칼리노카시등

영가등

크락왕생

공단등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